

서구, 100만원 기부 '나눔리더' 1호 탄생

고 김신자 씨 자녀 어머니 뜻 이어 1천만원 기부 해양경찰관 문호준 씨 '서창애운'도 1백만원씩 쾌척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에 '나눔리더 1호'가 탄생했다. 서구는 5일 서구청에서 고(故) 김신자 씨 유족, 해양경찰관 문호준 씨, 서창동 자생단체 연합회 '서창애운'이 함께한 '나눔리더 100(Giving Leaders Club)' 가입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서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추진하는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단체·기업을 '나눔리더'로 인증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8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신자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아파트 보증금 일부인 1천만원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김 씨는 오랜 세월 장애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챙기며 나눔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남겼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가입식에는 해양경찰관 문호준 씨와 서창동 자생단체연합회 '서창애운'도 함께 참여했다. 문 씨는 해양경찰에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 기간 동안 아껴 모은 100만원을 기부하며 "공직자로서 첫 월급보다 먼저 나눔으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서창애운'은 최근 광주서창역세권에서 운영한 역세권주택의 수익금 일부인



100만원을 기부해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온정을 더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나눔리더100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따뜻하게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민관이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HD현대삼호 임직원이 지난 5일 영암군청과 목포시청을 찾아 우성희 군수와 조석훈 시장 대행에게 카본매트를 전달하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 지역 저소득층 겨울나기 물품 후원

영암·목포 각 50세대씩 총 100세대에 2,200만 원 상당 카본매트 전달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과 HD현대삼호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겨울나기 물품을 후원하며 온정을 나눴다. HD현대삼호는 지난 5일 영암군청과 목포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우성희 군수와 조석훈 시장 대행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카본매트 100개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역별 50세대씩 총 100세대로, 목포시와 영암군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후원물품 전달은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물 지정기탁 방

식으로 이뤄졌다. HD현대1%나눔재단은 그룹사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기금을 마련해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카본매트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는 목포시, 영암군 지역에서 여름나기 및 겨울나기 물품 전달 사업,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복지시설 후원사업,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 지역 어르신들의 밀밭찬을 챙겨드리는 '행복한끼' 사업, 풍수해 복구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인도 인플루언서, 영암 한복·한옥·차에 빠지다

140~280만 팔로워 보유 3인 '전남관광 팸투어'로 구림마을 찾아

영암군(군수 우성희)이 1일 구림한옥마을에서 인도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하는 '한복입고 유유자적'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K-스톱오버 전남관광 팸투어' 중 하나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통한복과 차예절 체험으로 구성됐다.

영암·완도·목포·해남·여수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하는 전남관광 팸투어에는 인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280만명의 살로니 미탈(Saloni Mittal), 140만명의 심란 발라제인(Simran Balarjain)과 니하리카 제인(Niharika Jain)이 참가하고 있다.

영암 투어에 나선 이들은 관광두레 주

민사업체 '고영한복'에서 고운 전통 한복을 차려 입고, 구림한옥마을 담장길을 걸으며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다. 한복 당의와 한옥 처마의 유려한 곡에 감탄한 인플루언서들은 구림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이어진 차예절 체험에서는 차를 내리는 법, 영암 무화과와 녹차로 만든 비건 양갱을 즐기며 여유를 느꼈다.

영암군은 환영 현수막 게시, 지역 특산품 기념품 전달 등으로 이들의 지역 방문을 반겼다.

영암 관광두레 김은진 피디는 "2,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배



경으로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체험이 해외 인플루언서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줬다. 이들의 영향력이 영암의 매력을 세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영암이 대한민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와 협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영암 방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보성군, 회천면 '보성신협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 나눔' 추진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20가구에 이불과 생필품 전달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4일, 보성신협협동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정동섭)이 기획한 겨울철 보온 이불 18채와 생필품 '어부바 박스' 20상자를 전달하는 보성신협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 기탁 물품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신협사회공헌재단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탁 물품은 회천면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됐다.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은 2015년부터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국 신협이 지역 이웃들에게 직접 보온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성신협 정동섭 이사장 직무대행은 "협동과 상생이라는 신협의 본질을 실천하고자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종배 회천면장은 "난방비와 생계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주

신 보성신협에 감사드립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숲에서 피어난 따뜻한 온정... 함평군 '사랑의 빨감 나누기'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산림부산물 재활용한 '사랑의 빨감 나누기' 사업으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따뜻한 온정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올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일부를 빨감으로 준비해, 5일과 6일 이틀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25가구에 빨감 25톤을 직접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함평군은 2006년부터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사랑의 빨감 나누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버려질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와 맞춤형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군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산불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함평/전광훈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장성군 Jangseong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